

특별기고



김용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는 충무공 이순신이다. 이순신이 단순히 불패의 명장이어서 만은 아닐 것이다. <난중일기> 1597년 7월 18일 기록에는 '문견이정(聞見而定)'이라는 글을 볼 수 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후 싸울 방법을 정한다'라는 뜻으로,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현장을 외면한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음을 뜻하는 대목이다. 현장을 봐야 하는 것이 어디 전쟁터뿐이겠는가. 행정을 하는 모든 공직자야말로 현장을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병무청 역시 현장의 생생한 민원인의 소리를 토대로 매일 적극행정 회의를 하는 등 어떻게 하면 국민이 좀 더 쉽게 병역을 이행하고 또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전문 상담 서비스

지난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도박의심자를 찾아내서 도박중독관리센터와 협업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한 모집병 지원자를 위해 1

문견이정 자세로 국민 마음 헤아리는 적극행정

대1 맞춤 서비스하는 '모집코디119팀'을 운영해서 자진 병역이행을 도왔으며, 31사단 원거리 입영자 가족에게 지역관광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입대를 추억하게 하고 지역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는 직원 개개인이 업무 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병역의무자를 대하고 공감하며 다가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올해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첫째, 병역의무자들이 안전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등 민원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119안전센터를 찾아 심폐소생술 등 재난 안전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동원훈련 차량수송 중간집결지를 점검하고 동원훈련 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다. 한편, 병역의무자나 관계기관 담당자 등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에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둘째, 2021년부터 추진된 병역진로설계지원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등 정규고교 학생이 주된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범위를 넓혀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재원자 등에게 맞춤 병역설계를 지원한다.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병역이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서 성공적인 군 생활과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울 것이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를 지원하고 자긍심을 높여나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4,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방청장

을 비롯한 북부지도관이 장애인 특수학교, 노인요양 등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복무요원이 복무하는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모범 사회복무요원 복무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들의 사기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다.

병역 이행 예우받는 사회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최근 나주와 목포 동신대한방병원 그리고 영광대 광주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가 해당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비급여 항목에 대해 10~2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광주 서구 등이 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가고자 한다.

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정책 추진이라는 '날줄'에 국민을 이롭게 하는 '씨줄' 적극 행정을 엮어 인생 중 가장 푸른 시기를 맞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빛나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돕고자 한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와 열정, 협업과 소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병역정책을 추진하여 병역이행이 또 하나의 희망이자 기회가 되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월문제 해결 위한 노력, 멈춰야 합니까?

나쁜 일은 아니다. 조르주아감베이라는 정치철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내전을 분석하며 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줬다. 그의 분석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사회의 사적 영역(Oikos, 오이코스)에 머물러 있던 문제들이 내전을 통해 공적 영역(polis, 폴리스)으로 드러날 수 있다. 기존 질서와 권력관계에서 은폐되거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스타티스를 통해서 무화되고 그로인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2,19폭거사태와 그로 인해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전남의 시·도민들의 노력 역시 그렇다. 그동안 산적하게 쌓여온 오월 관련 여러 문제들이 공론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자기들의 행사에 반대의견을 내자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거짓 선동'이라고 치부하는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모습은 흡사 그들이 맞서 싸웠던 독재세력과 5·18을 폄훼 선동하는 이들과 닮아 보이기까지 한다. 그 외에도 오월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다가 오월단체에 이야기 안했다며 욕먹고, '오월을 이야기하는 게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일인줄 몰랐다'며 씩씩한 표정으로 돌아간 타 지역 청년의 모습, 오월정신 계승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온 청년들에 대해 그런 일은 자원봉사자나 돈을 주고 인부를 사서하면 된다는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의 말 등은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그래서 누구나 말하기 좋아해야 할 오월이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역사이자 눈치 보아야 할 오월로 바뀌어 있었다. 오

월단체의 과도한 당사자주의와 이권 개입,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공론장으로 끌고 오면 5·18을 폄훼하고자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들에게 먹잇감이 된다며 - '우리끼리', '조용히' 자정보력을 해야 한다고 지내온 세월 탓이다. 그러나 이제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미 80년 오월은 그 누구의 것만이 아닌 이 땅의 민중이 이룩한 역사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었다. 오월의 전국화와 세계화, 그리고 헌법 전문의 수록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를 비롯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저주 받은 대지에서 몸부림 하는 것이 아닌 80년 오월의 봉우리 위에 단단하게 서서 이 땅의 미래를 일구도록 하면 된다. 80년 오월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운동의 시원이 됐던 것처럼, 오월의 역사가 오늘의 정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한다.

오월 제전 앞에 작은 견해차와 갈등을 털어버리자는 말은 그래서 지난 세월의 잘못된 반복에 불과하다. 병폐를 싹고 오월의 봉우리를 흔드는 말이다. 오히려 오월 제전 앞에 자랑스럽게 서기 위해 견해차와 갈등을 더욱 내보이고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사태는 해결된다.

그러하여 광주에서 지난 평범한 30대 청년인 나는 여러분께 묻는다. 남들이 보기에 내전이라고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멈춰야 합니까?

'노란색 빗금'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안 된다

광역인도 가능토록 명시했다. 또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안전지대가 있는 대부분 구역에 '주정차 불

법'을 알리는 별도 표지판현수막 등 안내도 없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이재복 고충경찰서 녹동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b>전남매일</b>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b>朴哲弘</b>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b>金善男</b>		편집국장 <b>姜聲秀</b>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5·18 기념식, 정치권 화합·통합 보여주길

하루가 멀게 공격하고 싸우는 진영·팬덤 정치에서 한발 물러나 서로가 화합하고 손을 잡는 날이 왔다. 단 하루라도 그렇게 하는 날이 왔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야 정치권 인사가 총출동해 그날을 기념하며 대동세상을 꿈꾼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 동아시아,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민주와 인권, 나눔의 연대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와 광주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법 가치 수호를 골자로 한 5·18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광주를 인공지능(AI) 중심도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식 때와 마찬가지로 KTX 특별열차를 편성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 대통령실 참모 등이 대거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학교밖 청소년들 통합지원책 구축해야

해마다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 등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제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처분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말한다.

통계를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3만2,027명이 학업을 중단했고,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명에 달한다. 광주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수는 3,42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87명, 2021년 1,105명, 2022년 1,43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5월 기준 182명이 신규로 발생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가운데 36.6%가 '학교 다니는 것이 의미 없다'고 대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심리적 어려움(29.3%) ▲학교규칙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24.2%)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 공부(23.6%) ▲친구 관계 좋지 않음(14.0%) 등 순으로 답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체 의원이 광주를 찾아 그날 정신을 기린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최근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의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호남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이 '덧밭'인 광주에서 5월 정신을 계승한 정통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정의당도 17일 전야제에 이어 18일 기념식에 참석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17일 5·18 묘지를 참배하는데 이재명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동행한다고 한다.

5·18 기념식은 항상 뜻 깊고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이번 43주년은 여느 때보다 더욱 그렇다. 갈등과 분열, 정쟁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시간이다. 지금처럼 여야 협치와 통합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때가 없었다. 민주화의 상징 광주에서 오롯이 오월 정신을 계승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질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학교는 청소년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학교를 떠난다면 이 같은 기회도 놓치게 된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는 건 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가 비행청소년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해 자발적인 학업 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문제아라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인 교육적 지원등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들을 위한 상담과 학력 인정 등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서야 한다.

시도지사 호소와 응답, 공항문제 새 전기되길

기지수첩



김용원

정치부 차장

자들과 만나 "광주시는 소음을 유발하는 군공항을 이전해야하고, 전남도는 협조하는 상황인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군공항을 수용하자고 하는 김 지사에게 늘 감사하다"며 거듭 응답했다.

양 시도지사의 호소와 화답은 답보상태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는다. 함평군에서 이미 수차례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반대 일변도이던 무안군도 특별법 제정 이후 서서히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점도 호재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공항 이전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안 또는 함평으로의 군공항 이전이 무산될 경우 전남지역 이전 후보지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법에 담지 못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지원, 신도시 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소음 완충 지역 활용사업 등 쟁점 사안 합의에 적극 나서고, 가시적인 성과를 서둘러 도출해 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전 대상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을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것도 궤를 같이한다.

김영록 지사의 절절한 호소와 감사함을 담은 강기정 시장의 화답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공항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발전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담화문'을 통해 광주 민간·군공항이 함께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무안군이 대응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의 이날 담화는 '공항'을 둔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의지 표현으로 주목도를 높인다.

담화문 발표 직후 김 지사는 "전남·광주가 상생해야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단상에서 '큰 절'까지 했다. 그만큼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동시 이전이 필요하고 절박하다는 뜻이다. 도민들, 특히 무안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공론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호소로도 읽힌다.

김 지사의 담화문 직후 강기정 광주시장도 기

독자광장

보행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전지대가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홍보안내 부족에다 제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도로 안전지대는 도로에 노란색, 흰색으로 빗금 표시가 된 곳을 일컫는다. 특히 노란색 빗금 안전지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마련해 둔 공간으로 사고 등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를 피해 서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차량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관례법에서도 안전지대 진입 시 진입금지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 시 별도 고지 없이 차